

이덕일의 '역사의 창'



'일본서기'와 중복 물이

역사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과거의 사료를 해석하는 학문이다. 사료가 없으면 역사학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역사학의 장점이자 한계이다. 그래서 역사학 공부의 첫발은 사료 공부다. 이를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데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특정 사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정하는 '진위(眞僞) 판정'이다. 사료의 진위를 판정한 결과 가짜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두 번째 단계로 갈 필요도 없이 그 사료는 폐기된다. 그 사료가 진짜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다. 그 사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토하는 '가치 판정'이다.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한다. 상당 부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역사가는 승자의 시각으로 그 시대를 보지는 않는다. 때로는 승자의 기록보다 지워진 패자의 목소리에 주목한다.

사료 비판의 문제는 가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하기 힘든 사료들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서기'가 그런 경우다. 일본서기는 서기 720년에 야마토왕(大和天皇)에서 편찬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거짓말하기로 마음먹고 편찬한 책이다. 일본서기는 '고대 야마토의 왜왕(倭王)'을 역사의 주제로 삼아 쓴 책이다. 야마토왜는 백라야 3세기 후반에 가야계가 구유(久世)에 진출하면서 시작한다. 일본에서도 '일류가의 조상'(皇統:황조)들의 발생지라고 인정하는 구슈

남부 미야자키현(宮崎縣)의 사이토바루(西都原) 고분군이 이를 말해 주는 유적이다. 그런데 이 유적은 서기 3세기 말부터 시작하는 가야계 고분이다. 야마토왜는 백라야 서기 3세기에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서기는 서기전 660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실제 역사를 1천 년 가량 늘려 냈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일본서기는 신라·고구려·백제·가야가 모두 야마토왜에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라고 서술해 냈다. 야마토왜는 6세기까지 철을 만드는 제철 기술도 없었는데, 서기전 1세기 건국 당시 상당한 제철 기술을 갖고 있던 나라들이 모두 식민지였다는 것이니 물론 거짓이다. 이런 일본서기는 진서인가 위서인가?

그래서 일본에 근대 메이지(明治)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일본에서도 일본서기를 사실을 서술한 역사서로 보는 학자들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조선총독부의 이민시서 류(李滄龍)를 필두로 일본인 식민 사학자들이 일본서기는 진짜고, 삼국사기는 가짜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일본서기는 서기 371년에 백제 국왕과 그 아들이 야마토왜의 사신에게 이마를 땅에 대고 충성을 맹세했다고 나온다. 반면 삼국사기는 그해 백제의 근초고왕과 아들 근구수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고 나온다. 둘

중의 하나는 거짓이다. 이를 사료 비판 해 보면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는 삼국사기 기록은 중국의 '북사'(北史)와 '위서'(魏書)에도 나오는 역사적 사실이다. 야마토왜의 사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내용은 일본서기에만 나오는 거짓이다. 역사학의 기초인 사료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면 일본서기 내용이 가짜다.

그래서 일본서기는 진짜고 삼국사기는 가짜라고 하는 역사가는 일제가 한국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남한 강단 사학계는 이구동성으로 삼국사기는 믿을 수 없고 일본서기는 진짜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일본서기를 인용하면 식민 사학이냐?"라고 항변한다. 북한의 김석형·조희승은 일본서기를 인용해서 인내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라는 분국설(分國說)을 주장했다. 북한 학계의 분국설에 대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식민 사학'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한 강단사학은 분국설을 비난하면서 북한 학계의 분국설을 인용하면 '중복'이라는 '중복 물이'에 나서고 있다. 남한 강단사학이 기밀 곳은 분단, 반통일의 '중복 물이'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역사학의 기초인 사료 비판을 무시한 남한 강단 사학이 갈 길을 잃은 것은 역사학의 '필연'으로 보인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노년 괴롭히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



최치민  
삼무365한방병원 원장

최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늘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은 모든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관절인 무릎에서 흔하다. 무릎 관절의 연골은 위아래 두 개의 뼈 사이에 위치해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고 부하를 아래로 전달하여 관절 간의 마찰을 감소시키고 관절이 흔들거리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나 반복적인 사용으로 연골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닳아지면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면서 관절의 마찰이 커져 통증, 압통, 부종, 움직임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퇴행성 관절염이라 한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의 간단한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또한 지속적인 통증과 움직임 제한은 불안감, 우울증, 사회적 고립 등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가 필요하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다. 휴식 후 활동하려 할 때나 체중을 견디는 활동을 할 때 통증이 발생하고, 아침보다 저녁이나 운동 후 관절이 붓고 열이 나면서 아프다. 계단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활동이 어려워지고 무릎 관절이 붓거나 뻣뻣해져 무릎을 완전히 구부리거나 펴는 것이 힘들며, 움직이는 동안 무릎에서 삐걱거리거나 걸리는 느낌이 든다. 증상은 보통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관절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 변화로 관절의 마모가 더 심해지므로 관절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전에 운동이나 외부적 충격으로 관절이 손상을 받은 경우도 관절염으로 진행되기 쉽다. 관절의 무리한 사용과 반복된 육체노동 또한 연골의 손상을 가속화시키고, 과체중의 경우 관절과 연골에 가해지는 압박이 커지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관절염을 악화시킨다. 과체중 여성은 정상 여성에 비해 내 배, 과체중 남성은 정상 남성에 비해 다섯 배나 발생 위험이 높다.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 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무릎의 형태 및 정렬을 확인한 후 초저열 압기, 애플리 압박 검사(Apley compression test), 맥머레이 검사(McMurray test) 등을 시행한다. 엑스레이(X-RAY) 검사는 관절 간격과 골극의 유무에 따라 관절염을 1-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관절 간격이 좁아진 것이 의심되는 정도로, 연골 손상 정도는 양호한 편이다. 2단계는 관절 간격이 명확히 좁아져 있고 비정상적 뼈 증식이 골극이 관찰된다. 3단계는 관절

간격이 현저하게 좁아져 있고 뚜렷한 골극과 골 형태의 변형이 관찰된다. 4단계는 관절의 파괴와 변형이 관찰된다.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줄이고 기능 제한을 회복시켜 관절의 운동 능력을 개선하는 데 있다. 초기 단계에는 통증 관리 및 염증 감소에 도움을 주는 소염 진통제, 관절강 내 주사제 등이 활용되고 통증과 기능 제한이 심하거나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 관절절, 근위 경골 절골술, 인공 관절 치환술과 같은 수술을 하기도 한다.

한의학에서 관절염은 풍습(風濕)을 제거하고 기혈과 영위를 순행시키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침은 경직된 근육과 무릎 주변의 경혈을 침으로 자극해 기혈을 순환시키고 통증을 줄여준다. 제기자출부랑, 강활제통음 등의 한약은 염증 관련 인자를 억제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그 외에도 부항, 뜸, 약침, 추나 치료를 종합적으로 시행해 치료한다.

퇴행성 관절염은 단기간에 치료하기 어려우므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충격이 적은 운동을 통해 관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통증이 있는 경우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기능을 보조해 주는 보조대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평소 생활 시 바닥에 앉거나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와 같은 무릎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활동을 피해야 한다.

기고

애들아, 놀러 가자



강정희  
강진대규중 교사

학교 밖에 나가면 아이들은 달라진다. 네모난 교과서와 액정 화면에서 글과 사진으로 검색해낸 것들을 현장에서 오감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세계를 채색한다. 사람들 다들어 가곤 문화 공간과, 있는 그대로의 대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깊은 호흡을 하며 눈을 반짝인다. 그 과정에 부모와 교사가 동행한다면 내용은 풍성해지고 빛깔은 더욱 다채로워지리라. 온 마을, 온 나라가 아이들을 기르는 데 정성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아이들과 많은 어른을 만났다. 시인 소설가 화가 연극인 가수... 그중 이해인 수녀님은 오래전에 보았지만, 아이들이 지금도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다. 수녀님은 내게도 달고 싶은 멋진 어른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기말고사가 끝났다. 나이스 성적 처리 마감 버튼을 누르고, 아이들과 학교 밖으로 놀러 나갈 공리를 한다. 방과 후 활동과 보충 수업이 없기에 여름방학 전까지 2 주 동안 오후 시간 여유가 있다. 카페 독서, 문화 마실, 음악회와 미술 전시회, 1박 독서 캠프 등을 마구마구

계획한다. 그동안 단체 특방에 아침과 저녁 독서 기록을 꾸준히 올린 독서 천사들에게 알림을 보낸다. '나랑 놀러 갈 사람!'

그리하여 첫 나들이는 강진읍. 군 도서관에서 회원증을 만들고 자율 대출 반납기 이용법을 배운다. 세상에, 책 열 권을 한 달 동안 대출할 수 있었다. 책 십만 권이 있는 도서관을 통째로 선물한 셈이다. 식당에서 저녁밥을 먹고, 서점에서 갖고 싶은 책을 사고, 노래방에서 넉넉히 시간을 준다. 교육청에 신청한 동아리 예산이 든든하게 있으니 활동비는 걱정 없다. 노래방 로비에서 동전을 넣고 농구공 게임을 했는데, 내가 너무 잘해서 아이들이 깜짝 놀랐다. (으쓱^^)

다음날 강진만 가고 싶은 섬 가우도에 간다. 통유리로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파스타를 먹고 예쁜 잔에 음료도 마신다. 소파에 기대어 책을 조금 읽고(내가 개발한 '카페 독서') 주변을 산책한다. 벤치에서 책을 읽는 나를 두고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가우도를 향해 출렁다리를 건넌다. 뒷모습이 가뭇하게 멀어지는데 문득 꿈결인 듯 합창 소리가 들려온다. "선생님, 사랑해요" 녀석들,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도 외친다. "나도 사랑해." "선생님, 감사해요." 어느새 서늘해진 저녁 무렵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불어와 한 학기 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훨훨 사라지고 가슴이 몽글 내려앉는다.

다리 위로 마중을 간다. 자 이제 가우도 노래방이다. 반주는 강진만 파도 소리, 바다 노래를 골라 부른다. 나는 '바위섬'과 '섬집 아기'를 불러 준다. 아이들은 요즘

노래 중 내가 아는 곡이 있는지 묻더니 '조개 껍질 뚫어'를 부르기 시작한다. 기타반에서 배앓다고 한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교원 선생님에게 배운 손동작을 가르쳐준다. '연가'도 부른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이런 옛노래가 다시 유행하더라도 한 걸까? 옛 선생님이라 가르쳐 주신 노래를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렇게 내 아이들과 다시 부르게 될 줄이야. 여독해진 산 아랫마을에 보빛이 다정하다.

'장년이 널모레인데 아직도 그러고 다니는가??' 방학 계획과 안부를 묻는 동생의 문자다. 내년 2월이 정년이니, 널모레는 아니고 이제 한 학기가 남았다. 하지만 '내일모레'가 몇 번 지나면, 그 여섯 달이 금방 사라지고 2월이 다가올 것이므로 '내일모레'는 틀린 말이 아니라. '이제 곧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니 맘껏 해야지.'

이제 한 달여의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장맛비도 우리 길을 막지는 못하리.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 동네 골목마다 도서관 박물관 책방 갤러리 카페에서 북토크 사인회 낭독회 전시회가 깨알같이 열리고 있다.

이런 저녁을 먹고 크루스를 신은 채로 아이와 동네 마실을 가자. 문화와 예술로 아이의 세계를 채워 주자. 훗날 세상의 풍광을 넘리스하게 건너갈 단단하고 아름다운 배를 아이에게 선물하자. 지금 여기서 당장 행복해지는 소소한 여행, 아이의 방학을 예술로 만드는 동네 마실, 삶은 여행이다. 삶은 예술이다. 뭐라고? 여행과 예술을 살아버렸다!!

社說

줄줄 새는 신축 공공건물 부실 여부 밝혀야

장마철 역대급 집중 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광주에서는 큰 재산 피해나 인명 사고는 없지만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에서 물이 줄줄 새는 누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3년 동안 489억 원을 들여 지난해 말 19일 개장한 무등경기장 지하 주차장은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로 쪼아 있다. 현장 확인에 나선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와 시공사는 누수가 아닌 온도 차에 의해 이슬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인 물의 양으로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

광주시가 170억 원을 들여 복구 강화동 시화문화마을에 리모델링을 마친 광주 문학관도 누수로 9월 개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누수를 인정하면서도 단기간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린 탓이라고 밝혀 책임 회피성 해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26억 원 들인 서구 서빛마루센터

는 빗물이 새면서 지난해 말 27일 개관을 하루 앞두고 연기하는 촛국을 보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5월 31일 문을 연 송정역 주차빌딩도 이번 집중 호우에 물이 새 장마철이 끝난 뒤에 본격적인 보수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갖 지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물이 줄줄 새는 것은 뭐라 해도 부실 공사 탓이 가장 크다. 기관들은 장마철 이례적인 집중 호우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이상 기후로 갈수록 폭우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공사 전에 미리 대비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급 공사는 업자-브로커-공직자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유착이 부실시공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발주자-감리·시공사가 서로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법 하도급은 없었는지도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마철 싱크홀 주범 노후 하수관로 정비비

장마철 집중 호우가 길고 거세게 이어지면서 광주 도심 곳곳에 지난 침하로 인한 '싱크홀'(sinkhole: 함몰 구멍)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그제 오전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 직경 0.7m, 깊이 3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곳에선 지난 15일에도 비슷한 크기의 싱크홀이 생겼는데, 복구 작업을 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동구 지산동 우회도로 진출입로에 직경 2m의 싱크홀이 생겨났고, 지난해 28일에는 조선대 인근과 광주교대 인근에서 잇따라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 2019년 20건, 2020년 55건, 2021년 11건, 2022년 여섯 건,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15건 등 최근 5년간 107건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에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 7일 50대 여성이

지산사거리 인도에 뚫린 직경 2m, 깊이 3m의 싱크홀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

올해 발생한 15건의 싱크홀 중 일부 건은 장마가 시작된 6월 25일 이후 생겨났다. 이처럼 폭우 영향도 적지 않지만 근본 원인으로서는 하수도 관로 노후화가 첫손에 꼽힌다. 광주시 조사 결과 5년간 지반 침하 사고 중 70%(75건)가 '하수관 손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실된 하수관로의 연결 부위가 헐거워지면서 물이 새 나와 흙이 스며들고, 지반이 약해져 침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광주 지역에 매설된 하수관로 4466km 가운데 42%(1910km)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관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정비된 하수관로는 717km에 그치고 있다. 예산 부족 탓이다. 지반 침하와 싱크홀 발생을 예방하려면 노후 하수관로의 대대적인 정비가 급선무다. 광주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하수관로 보수와 교체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표를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고민은 고대부터 계속돼왔다. 투표로 선출한 이도, 폭력으로 권좌에 앉은 이도 탐탁하지 않았는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대표를 뽑았다.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10개 부족에서 50명씩 50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1년 동안 모두를 위해 일했다. 다만 일부 고위 관리들은 선출하기도 했는데, 전쟁에 나서야 할 장군이 대표적이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선양(禪讓), 즉 특출한 공이나 덕이 있는 자에게 자리를 넘겼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요순 시대', 이상적인 군주들

거의 있으나마나 했다가 1789년 5월 루이 16세가 재정이 어렵자 세금을 늘리는 문제로 170년 만에 재개했다. 사제·귀족 대표로 구성된 1·2부는 아예 세금이 없었고, 3부인 평민에게만 재정 부담을 지우려 한 결과는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

연일 이어지는 극한의 비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천재지변에 가까운 엄청난 양의 폭우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나오지만, 인명 피해의 과정을 살펴보면 인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

고는 반복되지만, 경찰·관료 등 공직자들의 위기 대처 자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은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은 여전한 셈이다.

무능력은 범죄다

공직 기간을 세워 주권자인 국민에게 제대로 서비스하도록 해야 할 의원, 지자체장, 대통령 등 대표의 게으름·무지·무능은 범죄다. 세월호, 이태원 등 믿기 어려운 참사에도 자리 보전에 연연하는 대표들 때문에 사고는 반복되는 지도 모른다. 대표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같은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은 여전한 셈이다. 공직 기간을 세워 주권자인 국민에게 제대로 서비스하도록 해야 할 의원, 지자체장, 대통령 등 대표의 게으름·무지·무능은 범죄다. 세월호, 이태원 등 믿기 어려운 참사에도 자리 보전에 연연하는 대표들 때문에 사고는 반복되는 지도 모른다. 대표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유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政	논설주간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정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8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